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찬 기적
라파엘로, 1515년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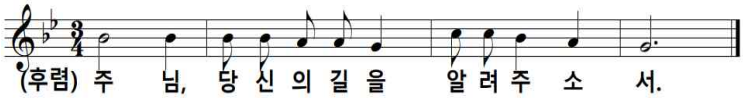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Joseph Juracek, O.F.M
지도신부 : 김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제1독서 | 요나 3,1-5.10

화답송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토 7,29-3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 마르코 1,14-20

성가 | 입당성가 [15] 1절 예물준비 [510]
영 성 체 [174] 파견성가 [15] 2,3절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김경련 율릿다	김지영 유스티나
이정진 안토니오	가족
정현술, 임판례	윤루시아
김영수 베네딕도	한지영 세실리아
조복달 마리아	조귀숙
민경하 경복순	민완준 필립보
유재선 율리안나	황지윤아녜스, 이영주비오
생미사	**봉헌**
성소후원회 회원들	성소후원회
이중근 요셉 건강	익명
이지훈 아녜스	세례,견진성사 교리반
이지훈 아녜스	가족
이영애 레지나, 이미진 죠앤 그레이스	가족
서하연 프란치스코 생일축하	한안나, 데레사
서하연 프란치스코 생일축하	민경록 가족
민경록 로이드 생일축하	가족
최준섭 다니엘, 최정림 베로니카와 가족모두	황지윤아녜스, 이영주비오
박아그네스 영명축일	양미숙 마리아
김소미 아그네스	한지영 세실리아
이로잔 캐더린 영육건강	이안나
이남석 베드로, 이서원 마리로사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병국 요한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박재호 베네딕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이진자 세실리아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1월 21일	김진수	민완준	김미혜	김미혜	민덕미	조바실리오 양글라라
1월 28일	백승민	김규헌	임지수	임지수	유정옥	김실비아 최사도요한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사무실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사무실

전신자 묵주기도 10만 송이 봉헌하기
기간: 10/01/2023~ 09/30/2024 ***현재: 27,530단**

▶오늘 미사 후 친교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울뜨레야 미동북부 2024년 신년 교례회

일시: 오늘(1/21) 오후 3시 30분. 데마레스트 성당
*신년 첫 월례회의, 11:30 교육관 1D, 점심후 출발

▶Youth 견진성사 교리반에 초대합니다~

대상: 6학년 이상~ 12학년까지의 영어권 청소년
견진성사일: 2024.3/30(부활성야 미사) 첫모임:2/18(주일)
신청: Sr.효주 347-834-5784

"청소년의 웃음소리는 하느님의 음악입니다. ♬"
청소년 한사람, 한사람을 교회로 초대해 주세요~

▶제66차 기초 성령세미나 신청(미동북부 지역 성령쇄신 봉사회)

일시: 2024. 3/14(목) 5pm~3/17(일) 5:30pm 3박4일
장소: 뉴튼 수도원. 지도: 봉사회 지도신부 및 사제단
신청마감: 2/29(수) 참가비: 390불(숙식제공)
신청: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레지오 마리애 캐나다 성지순례(미동북부 지역 교육협의회)

일시: 2024. 4/25(목)~4/27(토) 2박3일, 참가비: 800불
장소: 캐나다(Montreal,Quebec) 지도: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
신청마감: 2/29(수) 신청:꾸리아 단장 윤루시아 347-633-3767

▶청년회 스키캠프.

청년들의 친목도모와 다양한 액티비티가 진행하오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참가신청: 청년회
장소 : Clintondale,NY, 일정 : 2/2(금)~2/4(주일)
참가비 : $230(1/20까지), $250(1/21부터)

▶노숙자들을 위한 의류 기부

각 가정에 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해 주시면, 추운 겨울 노숙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 노숙인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고, 입을 옷도 부족합니다. 옷수거: 본당 사무실.
문의: 347-834-5784 기부처: 노숙자 보호소(브루클린)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서의 에티켓

성당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세요

1. 성당

-한국미사후 2층 성가대석에 음식물과 음료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또한 성가대 연습실 사용후 쓰레기를 처리하고 갑니다.(쓰레기는 지하1층 수거함에)
-주일 11시 영어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가대석에 들어오거나 성가대석을 통해 지나다니지 않습니다.

2. 다미아노 홀

-시설물(사진액자 등)에 손을 대거나 파손하지 말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사무실에 알립니다.
-친교시간 외 모든 모임 시, 외부 문을 닫습니다.

3. 아랫성당

-나무로 만들어진 성당 바닥이 긁혀 손상이 가지 않도록 테이블이나 연단을 끌며 옮기지 않습니다.

3. 2층 한국공동체 건물

-수도원과 가까운 곳이므로 오갈 때 더 침묵하고 깨끗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눈은 까만 하늘에서도 하얗게 내린다.

Jan 16, 2024, New York, 함박눈 오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1인, 100불 모금 운동

총 모금액 $24,576.05

미국 본당 재정 지원을 위한 1인, 100불 모금 운동에 동참해주신 교우분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영 김규현 윤준성 신승환 허철범 최병은 허강헌 허강준 이승재 이하나 방상욱 민현숙 양복연 이경자 안영옥 방지영 윤효숙 경원유 경재순 송준호 유소민 손명희 김애희 조남록 박신영 김루이 김유진 조성자 이정주 양미숙 송명근 송명자 김택영 김혜숙 김영희 김차순 서경자 이애자 김영숙 박인영 배애숙 정다경 안선정 전정은 린다김 이민환 윤동진 김승애 김기례 이정자 임영애 고은경 민정신 민지연 민유미 강혜숙 최미양 김보현 노애란 유희순 이규완 이태주 장민우 표해심 황인자 박종옥 부원희 강호영 김지현 민성진 함승연 최은자 문홍빈 문상민 김희진 안효준 한미영 안상민 김태경 이기수 김미화 허현근 조귀숙 허인선 송영중 강명옥 구달회 강행재 정희자 주이비 임지선 배옥희 한서희 김성중 김효진 이영노 허혜영 신윤길 유정옥 박정호 박정숙 김희선 이기원 손계숙 김진섭 강영옥 민완준 민덕미 권앨라 윤숙경 김승연 백이백 이정현 김승범 장혜원 김지영 황재윤 김이 LUCIA 김응천 가족 이소피아 여선구가족 셀리나해지스 주올리비아 JOHN YUN, PAGO CHO 전 베드로 데마레스트 수녀원 LUCIA YUN, 정대식 리차드가족, 익명 2명 / 강경모 김병훈 진현종 남지혜 문혜정 전푸름 임지수 배수아 이영주 이신혜 양현명 허강원 황인성 유승진 최인식 김동관 선영주 윤석환 이채은 유선욱 유대건 김진수 이제철 박승민 허서령 한창희 양정윤 김민찬 이인복 김정원 이지원 이재영 이세나 김은아 Angela Kim, Christina Yim. 익명 3명

*미국본당으로 직접 후원하신분: 이영애, 유희순, 임금종, 박정자, 이은경, 황수산나

은성제 요셉 신부

첫 본당 보좌신부 시절, 70여 명의 중고등부 친구들과 겨울 피정을 하던 중에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수의 답변순으로 1위부터 5위를 정하고, 그 중 1위와 2위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 기억에 남는 질문은 '나는 언제 하느님을 체험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둘 다 의외였는데, 2위는 '성체를 모실 때'였습니다. 1위는 더 놀라웠습니다. 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잘 이겨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별로 기도와 나눔을 하는데 많은 친구가 가정에서 겪는 부모님과의 갈등들, 어린 시절 상처들, 현재 고민을 조원들과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성체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저는 청소년들은 신앙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고, 그들이 하느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나 성당에서 청소년들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복음 속 예수님처럼 "와서 보아라."(요한 1,39)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대화의 장', '식사의 장'을 통한 인격적 만남과 '기도의 장'과 '들음의 장'을 통해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지 하룻밤을 지내고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요한 1,41)라고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도 예수님의 '와서 보아라!' 마인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면 자녀들은 청소년기에도 자연스럽게 인격적으로 오시며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신부와 수도자들, 교회 봉사자들은 더욱 예수님의 '와서 보아라!'의 마인드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청소년들이 성당에 왔을 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장'과 영혼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하느님 체험의 '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오늘 복음에서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인드, 즉 충만한 사랑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예수님표 만남'과 하느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로서 삶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